

40대 기혼남녀의 성생활의 질(SQOL)에 미치는 요인

양은영¹, 장영은^{*}
¹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Influential Factors for the Sexual Quality of Life in 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40s

Eun-Young Yang¹, Young-Eun Jang^{*}

¹Division of Nursing, Sahmyook Health University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40대 기혼남녀의 성생활의 질(SQOL)을 8개의 인구학적 변인, 8개의 성과 관련된 변인, 6개의 부부 관계적 변인으로 구분하여 그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중년 기혼남녀들의 성 건강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시도되었다. 2015년 1월 19일부터 2015년 3월 5일에 걸쳐 서울의 강남 2곳과 강북 2곳의 건강검진센터 방문 대상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40세-49세까지의 기혼 남녀 187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인구학적 변인 중에는 학력($p<0.05$), 건강상태($p<0.001$), 결혼기간($p<0.01$), 월평균 수입($p<0.01$) 변인이 성생활의 질에 유의미한 변인이었으며, 성 관련 변인 중에서는 성지식 정도($p<0.01$), 포르노 접촉($p<0.001$), 분만시 남편의 참여 여부($p<0.001$) 등의 변인이 성생활의 질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관계적 변인 즉 배우자와의 갈등 유무($p<0.05$), 성생활의 빈도($p<0.001$), 배우자와의 애정강도($p<0.001$), 가족진체와의 화목도($p<0.001$), 부부간의 일반적 의사소통($p<0.001$) 및 성적 의사소통 정도($p<0.001$)에서는 6개의 변인 모두 성생활의 질에 유의미함을 보여 주어 결론적으로 성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미치는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또는 성관련 변인보다 부부 관계적 변인이 더 중요함을 보여 주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22 selected variables for the sexual quality of life(SQOL) of married men and women in their 40s in an effort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tervention programs geared toward promoting the sexual health of married middle-aged men and women. The selected variables were eight demographic ones, eight sex-related ones and sex marital relationship one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the visitors of four different health examination centers in Seoul. Two of the health examination centers were located in the region of Gangnam, and the others were located in the area of Gangbuk.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from January 19 to March 5, 2015, the answer sheets from 187 respondents who were aged between 40 and 49 were analyzed. As a result, academic credential($p<0.05$), health status($p<0.001$), duration of marriage($p<0.01$) and monthly mean income($p<0.01$) were identified significant demographic variables to affect the sexual quality of life. Among the sex-related variables, the level of sex knowledge($p<0.01$) and exposure to pornography exercised($p<0.001$) and the husband's participation in delivery($p<0.001$) had a significant influence the sexual quality of life. All the variables of marital relationship that were marital dilemma($p<0.05$), the frequency of sexual relations($p<0.001$), love toward the spouse($p<0.001$), overall family harmony($p<0.001$), nonsexual communication($p<0.001$) and sexual communication($p<0.001$)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sexual quality of life. In conclusion, the variables of marital relationship were found to have been more important factors to affect the improvement of the sexual quality of life than the demographic and sex-related ones.

Keywords : Sex, Marital relationship, Spouses, Men, Women, Health status

본 논문은 2015년도 삼육보건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Young-Eun Jang(Sahmyook Health University College)

Tel: +82-2-3407-8767 email: 0120dream@shu.ac.kr

Received May 26, 2015

Revised (1st July 29, 2015, 2nd August 10, 2015)

Accepted October 8, 2015

Published October 31, 2015

1. 서론

현 시대의 각 개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웰빙(well-being)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웰빙에 대한 추구가 생활 패턴으로 잡혀가고 있다. 웰빙을 정의하면 “전반적인 생활과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다[1,2]. 특히 Shmotkin[2] 은 웰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활의 만족도’(life-satisfaction)라고 주장하였으며, Shin과 Johnson[3] 은 생활의 만족도를 ‘개인이 영위하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할 때에는 자신이 미리 정해놓은 기준과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의 내용을 비교하는, 소위 인지적인 판단 절차(cognitive-judgemental process)를 거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갖게 되는 주관적인 느낌은 직접적으로 행복이나 웰빙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삶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생활의 질(Sexual quality of life)’이라고 할 수 있다[4,5,6].

본 연구의 주제인 ‘성생활의 질(SQOL)’은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서심리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과 웰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Maslow[7]는 그의 단계적인 동기와 욕구이론(hierarchical motivation theory)에서 성적욕구에 대한 만족은 더 높은 차원의 인간욕구를 성취하기 전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였다. 또한 Renisch[8] 는 성(性)은 자녀를 낳기 위한 목적도 있으나 쾌락을 위한 삶의 만족과도 직결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강한 힘이 되고, 배우자간의 애정을 촉진시키며, 즐거움을 제공하고, 자긍심 강화, 긴장과 불안 감소, 남성성(masculinity)과 여성성(femininity)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장순복[9]은 Renisch[8]등과 마찬가지로 결혼생활에서 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혼남녀의 성생활은 결혼관계라는 사회적인 제도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육체적인 관계이며, 성적인 욕구의 표현을 통해 쾌락은 물론, 부부결속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본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부부간의 성생활은 서로의 감정적 또는 인격적인 표현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관심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성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부부가 함께 성장해 가는데 큰 기여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McCabe[5] 는 부부간의 성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인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전체적인 삶의 만족(global life-satisfaction)과 안녕(well-being)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40대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성적인 에너지 수준이 높은 연령 집단이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인생의 절정을 이루는 중년기로서 자녀양육의 책임이 무거워지며,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또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중요하게 수행하는 시기이다[10]. 그러므로 이 시기의 부부간의 정서적 친밀감, 상호간의 배려, 낭만적 사랑과 열정, 성적 친밀감 등의 정서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Bell[11] 의 연구에서도 부부간의 적응에서 부부간 정서적 친밀감과 성적 적응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부간의 성생활 만족감은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성적인 만족은 부부갈등의 요인을 감소시켜주며 부부 적응을 향상시켜주나, 부부의 성적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부부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특히 40대 기혼 남녀를 표집하여 성생활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에서의 40대 기혼 남녀의 의미는 결혼을 시작한 지 약 10-15년 정도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1970년경에 출생한 집단이며, 성적으로 개방적인 시기와 보수적인 시기가 혼합된 시기를 살아온 집단[12]으로 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사랑과 결혼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며, 성생활은 즐거움과 쾌락 중심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40대 중년의 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룬 미디어의 프로그램이나 기사들은 흔하게 접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학문적인 연구결과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는 8개의 인구학적인 변인, 8개의 성과 관련된 변인, 6개의 부부 관계적 변인을 사용하여 40대 기혼 남녀의 성생활의 질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 분석결과는 중년기의 결혼생활을 이해하고 가족갈등의 문제를 중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주는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40대 기혼 남녀의 성생활 질 정도를 파악한다.
- 2) 40대 기혼 남녀의 성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파악한다.
- 3) 40대 기혼 남녀의 가족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기초

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배우자와 동거중인 40대 기혼남녀의 성생활의 질을 측정하고 이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연구(descriptive study)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가자는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는 40세에서 49세까지의 기혼 남녀로서, 만성질환의 진단을 받은 바 없으며, 치료적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약물투여를 하지 않는 대상자만으로 제한하였다. 서울시의 강남과 강북 각 2곳의 건강검진센터 방문 대상자 중 위의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편의표출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Cohen[13]의 power analysis를 응용한 G*power 3.10 program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유의수준(α) 0.05, 검정력($1-\beta$) 80%, 중간효과크기(f) 0.25로 설정하였을 때 적정대상자는 100명이었으나 민감한 성(Sex)을 주제로 한 설문지이므로 미완성자나 불성실 작성자가 많을 것을 고려하여 206명에게 배포를 하였다. 그 결과 19명의 불성실한 질문지 작성자료가 제외되었으며, 최종 분석에는 187명의 자료만 포함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성생활의 질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Tara Symonds[4]가 개발한 Sexual Quality of Life(SQOL) 측정도구이며 이메일을 통하여 도구사용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성기능 장애와 성생활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성생활의 세 가지 차원, 즉 성적인 자긍심, 정서적 건강 그리고 부부관계에서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Cronbach's alpha는 .80이며, 수렴타당도는 $r = .65$ 라고 보고되었다. 원저자의 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18개의 모든 문항은 한 개의 요인에 적재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영문판 SQOL은 본 연구자가 back-translation 방법을 사용하여 한글로 번역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인의 영문학과 교수와 2인의 간호학과 교수의 감수를 받아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한글 번역판 '성생활의 질(SQOL)' 설문지는 모두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Tara Symonds [4]의 원본과 같이 6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에 대한 척도의 1점은 '전적으로 동의', 6점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18개 문항 중 13개의 문항은 '성생활의 질(SQOL)' 표현이 부정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있다. 예를 들면 '내 성생활을 생각하면 나는 좌절을 느낀다' 또는 '나는 성생활과 관련된 행동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등이다. 나머지 5개 문항은 긍정적인 기술로서 예를 들면 '내 삶을 전반적으로 볼 때 나의 성생활은 즐거운 부분이다' 또는 '나는 내 성생활의 빈도(횟수)에 만족한다' 등이다. 부정적으로 기술된 문항의 점수는 역코딩 절차를 거쳐 분석을 하였으며 18개의 문항 이외에 참가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22개의 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성 또는 부부관계와 관련된 문항들을 설문지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89이었으며 수렴타당도는 $r = .72$ 로 나타났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2015년 1월 19일부터 2015년 3월 5일에 걸쳐 수집되었다.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기 전에 본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직접 연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윤리적인 차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참여 동의를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설문작성 도중이라 할지라도 원치 않으면 중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적인 정보는 비밀을 유지할 것이며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하였다.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는 SPSS WINDOW 21.0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 2) 대상자의 성생활의 질(SQOL)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생활의 질(SQOL)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t-test로 분석하였다.

2.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대상자를 편의표출하여 진행된 제한점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3. 결과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즉 성별, 연령, 학력, 전반적인 건강상태, 가계 주수입자, 결혼기간, 월평균 수입, 자녀수 등 8개의 변인들의 빈도와 백분율, 성생활의 질의 평균차이와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성과 관련된 독립 변인으로서 부모로부터의 성교육 여부, 성지식, 포르노 사이트 접속 여부, 이성과의 인터넷 채팅경험 여부, 본인의 이성친구 유무, 배우자의 이성친구 유무, 분만시 남편참여 경험 여부, 제왕절개수술 출산 여부 등 8개의 변인을 분석하였고, 부부관계와 관련된 독립변인으로는 배우자와의 갈등 유무, 부부간의 일반적인 대화의 정도와 성적인 대화의 정도, 성관계의 빈도, 배우자와의 애정강도, 가족친제와의 화목도 등 6개의 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차이를 t-test로 검증하여 그 결과를 Table 2, Table 3과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87)

Variables	n	%
Gender		
Male	87	46.5
Female	100	53.5
Age (yr)		
40~44	88	49.1
45~49	99	52.9
Education		
High school or lower	71	38.0
College or above	116	62.0
General health status		
Good	120	64.2
Moderate	67	35.8
Major income		
Only husband	88	49.1
Together	99	52.9
Duration of marriage (yr)		
< 10	95	50.8
> 11	92	49.2
Monthly income		
< 3,000,000 won	99	52.4
≥3,000,000 won	88	47.6
Children		
One	39	20.9
≥Two	148	79.1

[Table 2] The results of the t-test on the 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sexual quality of life (N= 187)

Variables	f	Mean	SD	t	Sig
Gender				1.944	.053
Male	87	4.55	.87		
Female	100	4.31	.77		
Age (yr)				.409	.683
40~44	88	4.46	.78		
45~49	99	4.40	.86		
Education				2.054	.041*
High school or lower	71	4.33	.83		
College or above	116	4.58	.79		
General health status				6.890	.000***
Good	111	4.73	.68		
Moderate	76	3.98	.81		
Major income				.235	.814
Only husband	88	5.42	.88		
Together	99	3.58	.47		
Duration of marriage (yr)				2.895	.004**
< 10	95	4.87	.62		
> 11	92	4.44	.78		
Monthly income				2.783	.006**
< 3,000,000 won	95	4.27	.83		
≥3,000,000 won	89	4.60	.78		
Children				.073	.942
One	39	4.42	.80		
≥Two	148	4.23	.93		

일반적으로 이들 변인과 관련된 모든 집단들의 성생활의 질이 6점 만점에서 중앙치(3.50)를 상회하는 평균치를 보여주었다. 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여주는 집단은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집단으로 3.98이었으며,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여준 집단은 결혼기간이 10년 미만의 집단이 4.87이었다. 이들 변인중 유의미한 통계수치를 보인 변인은 학력($p<.05$), 전반적 건강상태($p<.001$), 결혼기간($p<.001$), 그리고 월평균 수입($p<.001$)이었다.

성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가정에서의 성교육 유무, 성지식의 정도, 포르노 웹사이트 방문 경험 유무, 인터넷 채팅 경험 유무, 자신의 이성 친구(속칭 애인), 배우자의 이성 친구 유무, 분만시 남편참여 경험, 그리고 제왕절개수술 출산 여부 등 8개의 변인이 포함되었다. 이들 변인의 하위집단 평균 점수는 모두 3.98을 상회하는 성생활의 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변인 중 유의미한 평균치의 차이를 보여준 변인은 성지식 정도($p<.05$), 포르노 사이트 방문 여부($p<.001$)과 분만시 남편참여경험 여부($p<.001$) 변인이다.

[Table 3] The results of the t-test about the sex-related variables and the sexual quality of life (N= 187)

Variable	f	Mean	SD	t	Sig
Sexual education from parents				.67	.506
Yes	45	4.35	.76		
No	142	4.45	.85		
Sexual knowledge (10 scale)				4.25	.000***
≤0~7 (low)	105	4.21	.84		
≥8~10 (high)	82	4.70	.71		
Visit to a porono site				4.68	.000***
Yes	55	4.01	.90		
No	132	4.59	.73		
Online chatting experience				.97	.332
Yes	33	4.45	.77		
No	154	4.30	1.03		
Another sexual partner for oneself				1.30	.194
Yes	30	4.60	.73		
No	157	4.39	.84		
Another sexual partner for the spouse				1.76	.081
Yes	63	4.28	.89		
No	124	4.50	.78		
Husband's participation in delivery				4.56	.000***
Yes	48	3.98	.73		
No	139	4.58	.90		
Cesarean delivery				1.21	.202
Yes	33	4.55	.77		
No	154	4.40	1.03		

Table 4. The results of the t-test about the variables of marital relationship and the sexual quality of life (N= 187)

Variable	f	Mean	SD	t	Sig
Dilema with spouse				2.04	.042*
Yes	69	4.26	.85		
No	118	4.52	.80		
Nonsexual conversation				7.95	.000***
Good (no problems)	88	4.89	.63		
Poor (so-so, almost never)	99	4.01	.75		
Sexual conversation				6.27	.000***
High (no problems)	62	4.91	.67		
Poor (so-so, almost never)	125	4.18	.79		
Sex frequency				4.05	.000***
High (once or more a week)	83	4.69	.76		
Poor (every ten days or once in a while)	104	4.22	.82		
Strength of affection (10 scale)				7.77	.000***
Strong (8~10 scale)	88	4.81	.65		
Week (0~7 scale)	99	3.99	.79		
Overall family harmony (10 scale)				6.04	.000***
Good (8~10 scale)	120	4.67	.86		
Bad (4~7scale)	67	3.98	.69		

부부 관계적 변인으로는 배우자와의 갈등 유무, 부부 간의 일반적인 의사소통, 성적인 의사소통, 성관계의 빈도, 배우자와의 애경장도, 그리고 가족전체와의 화목도 등 6개의 변인이 포함되었다. Table 4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들 변인과 성생활의 질의 평균치를 t-test로 분석한 결과 모든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40대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성생활의 질(SQOL)’을 22개의 독립변인 즉, 8개의 인구학적인 변인, 8개의 성과 관련된 변인, 그리고 6개의 부부 관계적 변인과의 관계를 하위 집단의 평균치를 비교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모든 인구학적 변인의 하위집단에 있어 성생활의 질의 평균 점수는 6점 척도에서 최고 4.87에서 최저 3.98로 다양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들 점수는 척도의 중앙치가 3.5점임을 감안 할 때 ‘아주 약간만족’에서 ‘아주 많이 만족’하는 등 “성생활의 질(SQOL)”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인구학적 특성에 포함된 8개의 변인 중 4개의 변인 즉, 학력, 전반적인 건강상태, 결혼기간, 월평균 수입이 유의미한 통계치를 보여 주었다.

본 연구의 학력에 관한 결과는 학력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많으며 성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실험을 하거나 모험적으로 즐기려는 성향이 있다는 선행연구[16,17,18]가 이를 지지해 준다. 또한 성적인 활동은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일수록 더 활동적이고 왕성하므로 건강상태가 ‘나쁜’ 그룹보다 성생활의 질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요인이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일반적인 기대에 따라 월평균 수입이 300만원 이상과 이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양은영[19]의 연구에서도 소득이 높을수록 성생활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성생활의 질(SQOL)’ 개념과 다른 연구에서 사용된 ‘성만족’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가 조심스럽게 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나 Rainwater[20]의 연구에서 생활수준에 따라 성적 만족도가 다른데 상류층이 하류층보다 더 높다고 제시한 연구 결과가 본 연구 결과와 맥락이 같다고 볼 수 있다. 결혼

기간이 짧을수록 부부애의 강도가 높으므로 성생활의 질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성과 관련된 변인 8개의 변인 중 성지식이 높은 집단($m=4.70$)이 낮은 집단($m=4.21$)보다 높은 성생활의 질을 보여 주었으며, 포르노 사이트를 방문한 경험이 없는 집단($m=4.59$)이 있는 집단($m=4.01$)보다 성생활의 질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남편의 분만참여경험($m=3.98$)이 있는 집단이 분만참여경험이 없는 집단보다($m=4.58$)보다 성생활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에 대한 해석은 대단히 어렵다고 여겨진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성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성생활의 질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으나 실제로 성생활의 질을 어떻게 높여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포르노에 관한 동영상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여 즐기는 중년 남녀들이 성에 대한 테크닉이나 채위등을 모방하고 실제로 수행해 봄으로서 성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남편의 분만참여 경험이 성생활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결과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에서 더 다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성과 관련된 변인 중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성생활의 질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과연 가정에서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성학적(sexology)인 지식과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성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포르노 사이트 방문 여부는 통계적으로 대단히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이성과의 인터넷 채팅경험 유무는 무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두 변인이 비슷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되는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런지 난감하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이성친구(속칭 애인)를 갖고 있는지의 여부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가정외에서의 애인 유무는 분명히 가정에서 아내/남편과의 성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성생활의 질이 저하된다고 기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역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한다.

부부 관계적 변인으로는 배우자와의 갈등 유무, 일반적인 의사소통, 성적인 의사소통, 성관계의 빈도, 배우자와의 애정강도, 그리고 가족전체와의 화목도 등 6개의

변인이 사용되었다. 이들 변인들은 예외 없이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즉, 배우자와 갈등이 없는 집단은($m=4.52$) 있는 집단($m=4.26$)에 비해서($p<.05$), 부부간에 일반적인 대화나 성적인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집단(일반대화: $m=4.89$, 성적대화: $m=4.91$)이 그렇지 않은 집단(일반대화: $m=4.01$, 성적대화: $m=4.18$)보다 성생활의 질의 점수가 유의미하게($p<.001$) 높았다. 또 부부간의 성관계의 빈도가 ‘주1회 이상’인 집단($m=4.69$)이 ‘열흘에 1회~어쩌다 한번’ 집단($m=4.22$)에 비해 성생활의 질이 유의미($p<.001$) 하게 높았으며, 배우자와의 애정강도나 가족 전체 구성원과의 화목도가 높은 집단(애정강도: $m=4.81$, 화목도: $m=4.67$)이 그렇지 않은 집단(애정강도: $m=3.99$, 화목도: $m=3.98$)보다 통계적($p<.001$)으로 성생활의 질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우자간의 갈등, 의사소통, 성교의 빈도, 애정의 강도 그리고 가정의 화목도가 성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에 결정적인 요소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 관계적 변인들이 성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 예를 들면, 이영실[15] 은 부부갈등과 성생활 불만족의 정도와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양은영[19]의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대화가 기혼여성의 성생활의 질에 미치는 가장 큰 결정변인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는 주로 부부간의 일반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다루었으며[16] [21,22]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는 성적인 의사소통이 성적 만족도에 크게 기여한다고 강조하는 바를 Byers & Demmons[23] 와 Ferroni & Jaffee[24] 의 연구에서 알 수 있다. 성교의 빈도에 관하여 홍성목[14] 은 성은 단순히 본능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사랑의 행위라고 강조하면서 성교를 통한 부부간의 사랑을 강화시키면 성생활의 질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부부간 애정의 강도가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은 전반적인 가족의 분위기가 따뜻해지며 가족 구성원간의 화목도도 높아진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하여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들이 국내에서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25,26,27].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40대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성생활의

질을 8개의 인구학적인 변인과 8개의 성과 관련된 변인 그리고 6개의 부부 관계적 변인에서 하위 집단의 평균치를 비교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8개의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학력, 전반적인 건강상태, 결혼기간, 월평균 수입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8개의 성과 관련된 변인에서는 성지식, 포르노 사이트 방문경험, 남편의 분만참여경험에서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개의 부부 관계적 변인에서는 6개의 변인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성과 관련된 변인 중 가정에서의 성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의 '성생활의 질(SQOL)'이 좀 더 높은 것은 부모로부터의 성교육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획득되는 성지식을 따라주지 못하는 것인지 고찰이 되어져야 한다. 둘째, 포르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은 집단의 '성생활의 질(SQOL)'이 높은 것은 포르노 사이트를 방문하는 집단과 어떤 차이점으로 인한 것인지 탐색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분만시 남편이 참여함으로써 '성생활의 질(SQOL)'이 더 낮아지는 것은 여성에게서 기인된 부정적 느낌인지 배우자인 남성에게서 기인된 좋지 않은 정서 또는 문화적 편견인지 이 또한 탐색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제왕절개로 출산한 집단의 '성생활의 질(SQOL)'이 자연분만 집단보다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해부생리학적 변화의 차이로 인한 것인지 심리적 차원에 근거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배우자 외의 애인 유무는 분명히 가정에서 배우자와의 성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되어 성생활의 질이 저하된다고 예측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역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40대 기혼남녀들의 '성생활의 질(SQOL)'을 결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부부 관계적 변인이므로 이를 위한 중재에서는 성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부부간 갈등해결방법, 그리고 애정강도를 높임으로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Reference

- [1]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95 No. 3, pp. 542-575, 1984.
- [2] Shmotkin, D., "Subjective well-being as a function of age and gender: a multivariate look for differentiated trend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23 No. 1, pp. 201-230, 1990.
- [3] Shin, D. C., & Johnson, D. M.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5 No. 1, pp. 475-492, 1978.
- [4] Symonds, T., "The development of a new sexual quality of life questionnaire.", *European Urology supplements*, 1, pp. 1-151, 2002.
- [5] McCabe, M. P., "Intimacy and quality of life among sexually dysfunctional men and wome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Vol. 23 No. 4, pp. 276-290, 1997.
- [6] Shahnaz, K., "Exploring infertile women's experiences about sexual life ; A qualitative study", *Iranian Journal of Nursing and Midwifery Research*, Vol. 20 No. 1, pp. 34-39, 2015
- [7] Maslow. A. H.,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pp. 1-369, 1970.
- [8] Reinisch, J. M., Beasley, R., & Kent, D., "The Kinsey Institute New Report on Sex: What you must know to be sexually literat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 [9] Jang, S. B., "Factor analysis of the satisfied sexual lives of wives with metrectomy experi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Ewha Women's University, pp, 4-7, 1989.
- [10] Nam, Y. J., "Sexual meaning types and marital satisfaction of the married in their 30s and 40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p, 6-7, 2003.
- [11] Bell, R. R., "Marriage and family intraction", HomewoodII, The Doesey Press., 1979.
- [12] Kim, M. R., "Gender, love, marriage, family and Korean society." Seoul: Kyungmunsa, pp, 5-33, 2001.
- [13]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te, NJ: Lawrence Earlbaum Associates, pp, 1-150, 1988.
- [14] Hong, S. M., "Good Sex & Good Life" Seoul:HWBook, pp, 53-55, 2005.
- [15] Lee, Y. S., "Marital conflict factors and the level of dissatisfaction with sexual life in urban wiv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pp, 71-85, 1989.
- [16] Kim, S. O., "The necessity and state of marital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marital relationship", *Life Sciences of Sungkyunkwan University*, pp, 55-69, 2001.
- [17] Marta, P. W., "Relational Intimacy and Sexual Frequency; A Correlation or a Cause. A Clinical Study of Heterosexual Married Women", *Journal of Sex & Marital Therapy*, Vol. 37 No.1, pp. 1-10, 2015
DOI: <http://dx.doi.org/10.1080/0092623X.2015.1033574>
- [18] Jee, Y. J., "Factors influencing sexual function of

middle-aged married Korean women”, Journal of Physical Therapy Science, Vol. 27 No. 3, pp. 819- 823, 2015.

DOI: <http://dx.doi.org/10.1589%2Fjpts.27.819>

- [19] Yang, E.Y., “Quality of sexual life in married women: Its factor structure and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 13 No. 2, pp. 77-87, 2007.
- [20] Rainwater, L., “Some aspects of lower class sexual behavior”.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22, pp. 96-107. 1966.
DOI: <http://dx.doi.org/10.1111/j.1540-4560.1966.tb00538.x>
- [21] Kim, Y. W., “A study on relations among level of sexual knowledge,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the sexual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pp. 13-47, 2000.
- [22] Shim, C. K., “A study on marital satisfaction, marital communication and sexual life satisfaction in aircrews”, Unpublished thesis, Graduate School of Soongsil University, pp. 89-95, 2000.
- [23] Byers, E., & Demmons, S., “Sexual satisfaction and sexual disclosure with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ex Research, Vol. 36, pp. 180-189, 1999.
DOI: <http://dx.doi.org/10.1080/00224499909551983>
- [24] Ferroni, P., & Jaffee, J., “Women's emotional well-being: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g sexual needs”, Sexual and Marital Therapy, Vol. 12, pp. 127-138, 1997.
DOI: <http://dx.doi.org/10.1080/02674659708408155>
- [25] Bang, H. J.,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communication program for couples in early stage of marriage” Unpublished thesis, Graduate School of Shilla University, pp. 27-45, 2002.
- [26] Lee, H.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gnitive-behavioral marital communication program”,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Therapy, Vol. 7 No. 1, pp. 5-29, 1999.
- [27] Jeong, H. S., “Marital relationship education progra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18 No. 1, pp. 17-29, 2000.

장 영 은(Young-Eun Jang)

[정회원]



- 2010년 2월 :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석사)
- 2014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중앙간호, 여성건강

양 은 영(Eun-Young Yang)

[정회원]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1997년 3월 ~ 현재 :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건강, 여성건강